

시집 한 권에 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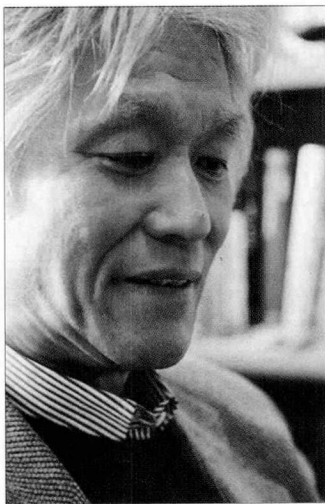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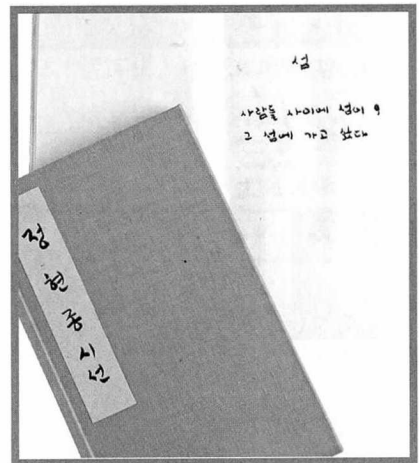
한지에 실크인쇄 ... 전통적인 수제본 작업으로 엮어

“시집 한 권에 35만원이라구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비싸답니까?”

최근 한 시집의 판매가격이 일반 시집 평균가격의 서른배가 넘는 35만원에 책정되며 나타났던 반응이다. 이와 같은 이슈의 주인공은 우리 시문단의 큰 별이자 세계적인 시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정현중 시인의 대표작 모음인 『정현중 시선』(시와시학사). 그런데 파격적으로 높은 가격 이외에도 이 시집이 시선을 이끄는 이유는 또 다른데도 있다.

이 시집은 국내 최초로 시인이 직접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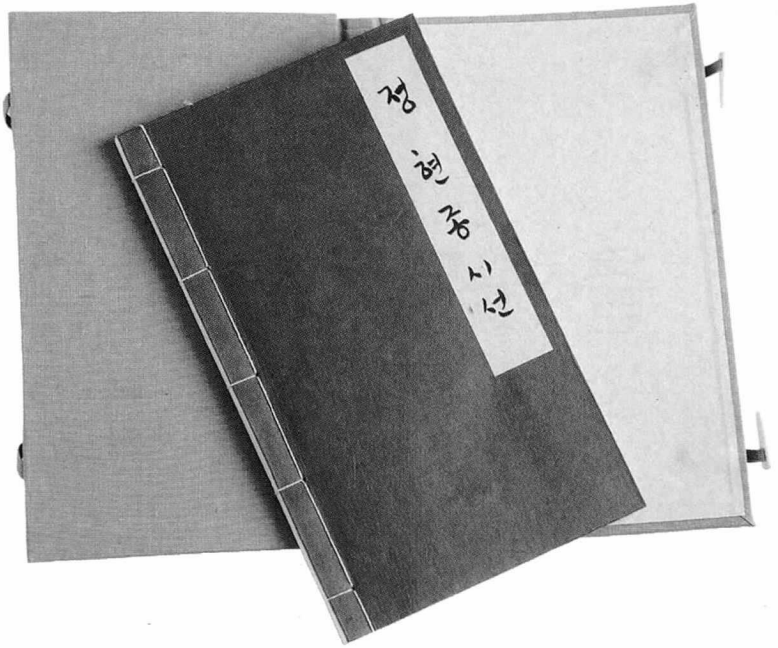
자필 원고를 한지에 인쇄해 수제본 방식으로 엮어 출간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전통 방식의 채택은 책의 내용과 형식의 품격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시사에서 새로운 시도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기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선집은 1965년 시단에 등단했으며 시창작 기간만도 40년이 넘는 정현중 시인이 평생 써 온 대표작품만을 골라 발간한 것으로 시인이 다듬고 지켜온 시 정신과 영혼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한다.



●●●●● 작가 정현중은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신태양사·동서춘추·서울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재직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단에 등장한 이후 『사물의 꿈』 『나는 별아저씨』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한 꽃송이』 『세상의 나무들』 『갈증이며 샘물인』 등의 시집과 『고통의 축제』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사람으로 붐비는 얇은 슬픔이니』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이슬』 등의 시선집을 출간하였다. 독특한 시론과 탁월한 산문을 모은 『날아라 버스야』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숨과 꿈』 『생명의 황홀』 등을 펴냈으며 시 번역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예이츠, 네루다, 로르카의 시선집을 번역 출간했다. 한국문학작가상·연암문학상·현대문학상·이산문학상·대산문학상, 공초문학상, 네루다상 등을 수상했으며 아들 영철씨는 ㈜한성인쇄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시집은 작가가 대표작품 30편을 한지 위에 실크인쇄를 하고 일일이 전통적인 수제본 작업으로 엮어 완성됐다. 제본방식은 무명실에 밀납을 하여 손으로 직접 꿰매는 한국 고유의 제본방식인 오침 제본을 따랐다. 아울러 합지에 천을 배접한 전통 책갑 방식으로 책을 제작했으며 고리(메뚜기)는 상아를 사용했다.



자필 시 한지 위에 실크인쇄

이 시집은 작가가 대표작품 30편을 한지 위에 실크인쇄를 하고 일일이 전통적인 수제본 작업으로 엮어 완성됐다.

이를 위해 한지는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풍산 한지를 사용했다. 풍산 한지는 전통 한지의 풍취를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지에 비해 결이 고우면서도 탄력이 좋아 수명이 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시 1편은 자필 원본 그대로 수록하여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본방식은 무명실에 밀납을 하여 손으로 직접 꿰매는 한국 고유의 제본방식인 오침 제본을 따랐다. 아울러 합지에 천을 배접한 전통 책갑 방식으로 책을 제작했으며 고리(메뚜기)는 상아를 사용했다.

국문과 교수 퇴임 기념으로

많은 후학들에게 올곧은 시 정신의 좌표가 되었던 정현종 시인은 올해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직을 퇴임하게 된다. 이 시집은 정현종 시인의 퇴임에 맞춰 책이 출간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시문학이 소원해진 세상에서도 지난 2003년 출간한 시집 『견딜 수 없네』(시와시학사)에 독자들이 보내준 애정에 대해 시인과 출판사가 헌정시집으로 기획한 것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시집은 인사동에 있는 고서점 <문우서림>의 대표이자, 고서학자인 김영복 선생의 많은 자문이 있었으며 문화재 복원 수리 전문 기능인인 정일표구사의 김권영 대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지인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이 녹아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 주문으로 100권만 한정판매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정현종 시선』은 그 특별함만큼 기존의 판매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만 보급된다. 오로지 인터넷 서점을 통한 주문판매 형식으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100부 한정 본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책의 일련번호 역시 판매 순서에 따라 매겨져 그 소장가치를 더욱 높였다.

<조갑준 차장>

